

존경하는 교장선생님

결실의 계절 가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학생들의 꿈과 끼도 더욱 영글어 가리라 봅니다. 이렇게 견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학교 현장에서 늘 애써주시는 교장선생님께 감사드리며 네 번째 편지를 올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교육을 위해 노력해 주신 교장선생님 덕분에 학생자살률이 9월말 기준으로 작년 88명에서 금년 72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10월 들어 많은 학생들이 우리의 품을 떠나 현재 81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사고 학생들의 원인을 살펴보면, 가정문제가 51.7%, 학업문제가 24.1%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가정문제 대부분이 부모와의 갈등과 꾸지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원인으로 금년에 자살을 시도한 학생만 해도 17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모의 과도한 질책은 자녀의 자존감에 상처를 주어 극단적 행동으로 귀결될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자녀에 대한 이해와 대화가 중요합니다. 학교는 학생에 대한 얘기를 가정과 수시로 주고받으며 평상시와 다른 징후가 나타날 경우 보호자와 신속히 상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교장 선생님,

이제 곧 수능이 실시되고 기말고사와 진로선택 등으로 학생들의 고민이 더 깊어지는 시기입니다. 더불어 선생님들도 일 년을 마무리 하는 바쁜 일정의 연속일 것으로 압니다. 이럴 때 정작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학생을 자칫 놓칠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평상시 끊임없이 자신의 어려움을 다양한 형태의 신호로 표현하지만 우리는 무심코 그냥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괜찮은데, 잘 지내고 있는데,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아이들을 세심하게 살펴 물어봐 주시고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배려와 공감의 학교문화는 교장선생님의 말씀 한마디, 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선생님들께서는 학생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되새겨보고 짚어보는 계기가 될 것이며, 힘든 처지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희망의 끈이 되고 용기를 북돋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교장선생님께 학생들에 대한 진심전력을 부탁드립니다.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 10. 26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황우여

황 우 여